



< 혼잣말 > 오월 삼십일 일 (5月31日)

내 일기를 팔로우해 주시는분들 안녕하세요?

어제밤에 한국에서 내 아내와 같이 무사히 귀국했다.

부산-경주-안동-(경주)-서울까지 돌아왔지만, 부산에 도착했을 때

현지 가이드가 (일본어를 잘 하시는 45 살 한국 여성인데,

KTX 를 타는 데까지 3 일동안 동행)

“여기는 어제 39 년만에 오월에 30 도를 넘는 기록적인

더위였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주나, 안동은 매일 더위속에서 투어.

참가자는 저희외에 오사카에서 와서 부산에서 합류한 퇴직한후

얼마되지 않는 부부 포함해서 네 명뿐이었다.

4 명뿐이니까 이동용 차는 버스가 아니라 봉고 타이프였다.

나는 조수석 가이드뒤에 자리를 앉게 되서 결과적으로

차 안에서 한국어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운이는

아주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됐다.

서서히 정리해서 웨프일기에 순차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한다.

사진은 귀국 전날밤에 찾아간 서울 타워다.



< 혼잣말 > 6 월 1 일

<국제시장>

이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넘어가 한국역대 2 위의 동원수를 기록한

감동의 서사시.

무대로 뽐힌곳이 부산 국제시장이다. 사진은 그 촬영에 사용됐던 가게다.

도쿄에서는 5 월 16 일에 개봉했으니까 조만간 보러 가려고요.



< 혼잣말 > 6 월 2 일

지금 여행사진을 정리중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직 2-3 주간 후가 될 거예요. 올린후 알려드릴게요.

이번 여행은 참가자가 생각보다 더 적어서, 게다가 간단한 한국어

회화의 연습도 목적의 한 가지 였으니까 사누키우동 씨의

코멘트대로 일석이조였다.

그리고 하나 더 운이 좋았던 건 우리의 도착 전날이

한국에서는 석가 탄신일이어서,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어서, 차가 밀리고 관광지도 너무 붐비고 주차장은
꽉 차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서 걸어가는 게 힘들었다고 들었다.
다행히 우리 투어는 어디 가서도 별로 붐비지 않아서 편했다.

잡담;

45 살의 한국인 가이드에게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봤더니 남편분의
임무 때문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싱가폴부근)에서 5 년동안 살아서 늘
일본여성들과 같이 등바구니를 짜거나 수세공을 해서 일본어에 접하게 되어
조금씩 일본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혼자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마스터 했대요.

그녀는 서글서글한, 밝은 여자이며, 자갈치시장에서 개불(ゴムシ)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것은 개의才チ○○○이에요 라고
농담섞어 가르쳐 줬다.

웹으로 알아보면 한국에서는 모래지의 바다 밑바닥에서 갈고리의 형태의
낙시장치(낙시)를 끌고 잡다.

개불로 일컬어서 연안지역에서 생선회처럼 날로 먹거나 꼬치구이,
호일 구운것 등 일반적으로 먹는다고 해요.

신경주역에서 KTX 를 탈 때까지 아텐드 해줘서

내가 그 단어는 결코 못잊어 라고 웃고 헤어졌다.

사진은 부산타워(118m 고도)에서 자갈치 시장

(갈매기 모양의 지붕)과 영도대교의 전망.



< 혼잣말 > 6월 3 일

사진은 부산극장등이 늘어선 영화관가(BIFF 광장) 로 나온길하고

1997 년에 비토 타케시 씨가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 기념으로

만들어져서 보도에 묻힌 손의 형태를 합성 한 사진이다.

오늘 오전에 신주쿠에서 영화(극제시장)를 보고 왔다.

아주 재미 있었다. 조금만 대화도 알아들을 수 있는 데도 있었으니까요.

주인공 '덕수'는 어디에서 본적이 있는얼굴 이라 알아봤더니

(영화 그차 바라보다가)의 주인공 별 능력이 없는 우체국 직원

황정민 이라는 배우였다.

그저께 사진을 올린 가게 '꽃분이네' 는 말할 것도 없이

부산의 여기저기 풍경이 나와서 너무 그리웠다.

그 날의 첫 상영이라서 60%의관객이었지만 레이디스

데이 이니까 남자들은 아주 적었다.



< 혼잣말 > 6월 4 일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숙박해서 아침식사후 산책중에 촬영.

멀리에 고층건축물이 늘어선 마린 시티가 보인다.

모래사장에서는 꼭 모래 축제(삿포로 눈축제의 모래 판이며)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영화"해운대의 연인들"의 무대가 된 장소이다.

우리 호텔 옆에는 카지노가 있었지만 갈 수 없었다. (여유는 없었다)



< 혼잣말 > 6월 5 일

사진은 불국사 극락전 지붕 뒷면(안쪽)에 조각된 멧돼지가

있는 것이 2007 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해는 돼지띠였고, 경기가 아주 좋아서 아기도 많이 태어났다는

해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이드한테서 들었다.



< 혼잣말 > 6월 6일

설명부족이었네요. 말씀하신대로 멧돼지는 액자의 바로 뒤에 있는 채색 되어 있지 않은 갈색 목각이다.

동행의 두분이 경주에서 구경하는 째째이 거기에서부터 가까운 도자기 제조 판매 가게(月池館)에 들르고 싶다고 해서 들르기로 되었다. 여러가지 설명을 받으며,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보여주었다. 전시품(상품)은 큰 거 작은 거 여러가지, 모양이나 무늬도 여러가지.

내 아내가 말했다. “우리집에도 이런 것이 는데” 라고 말해서 생각난 것은 25 년쯤 전에 서울에 출장갔을 때 선물로 산 것이 생각이 났다. 한국 도자기의 특징은 관유(貫乳)라고 불리는 소지와

유약(잿물)의 팽창률의 차이에 의해 도자기 유약에 잔

무늬로 갈라진다.

즉 고온으로 소지위에서 녹아, 일체였던 유약은 갑자기 식힐 때

소지보다 더 강하게 수축하면 상온에서는 유약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유약은 끊어지고 갈라진다.

틀림없이 가늘게 갈라진 무늬가 있다.

가격적으로는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출장에서 그렇게 비싼걸

살 리가 없다) 저번에 포르투갈의 선물로 사온 금세공의 배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것도 잊어버렸다.

동행 두분은 사모님이 다도를 하기 때문에 향로와 화병을 샀다.



< 혼잣말 > 6월 7 일

6 년쯤 전에 NHK 라디오 한국어 강좌에서 서울 타워의

(사랑의 자물쇠)에 대해 나온 장면이 있어

그 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사랑을 맹세한 연인들끼리

자물쇠를 걸고, 헤어지는 일이 없게 가능한 한

먼 숲을 향해 그 열쇠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다.

(헤어질 때는 그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

어제 아사히신문 석간(도쿄판)에서 일본의 지바현에서도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걸 알았다.

합성사진은 서울타워와 부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와 신문기사다.



< 혼잣말 > 6월 8일

경주의 중심부에 있는 광대한 부지에 신라시대의 고분 23 기가
산재하는 공원(大陸苑대륙원).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내부공개도 되고 있는 것이
사진의 천마총(天馬塚) 이다.

고분에서는 왕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말해

주는 수많은 부장품이 출토되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5-6 세기의 유물은 대체로 순금제이다.

천마의 이름의 유래는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백마를 그린 마구가 발굴된 것에 의한다.

총(塚)이라는 것은 매장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못한 무덤이고,

신원이 판명된 고분은 00 王陵 이라고 불리고 있대요.

(근데 이 대륙원 공원에서는 味鄒王陵 뿐이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금이 채굴되었을까?

이하는 가이드의 이야기다. (1)

1950~1953 년 까지 조선 전쟁이 일어났다.

그 때 부산 그리고 그 근교(경주도 포함해서) 많은

미국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노동자도 고용되어 있었다.

근로자가 금을 찾아내지 안도록 No touch, No touch 라고 말했다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금을 No touch 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서

당시 금을 노다지 라고 불러 있었대요.

가이드의 이야기다. (2)

대륙원 공원은 백일홍나무가 몇 개과 눈에 띄었다.

고분이나 옛날 학문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백일홍이 심어 있었대요.

백일홍 나무에는 나무껍질이 없고, 속이 다 보이기 때문 이고,

이건 유교의 혼유에 의거하고 있대요.

「굳더더기」

가이드가 「断捨離」라는 말 의미를 몰랐다니까 가르쳐줬다.

요즘 연금의 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4 월쯤에 본 한국 드라마 「유령 : ファントム」가 생각이 난다.



< 혼잣말 > 6 월 9 일

사진은 안동 하회 마을의 수령 600 년을 넘어간 느티나무이며,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마을의 신의 나무이다.

안동에서는 조선시대에 많은 명문이 살고 있었다.

특히 안동하회마을 풍산류씨는 600 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집에서 제사가 많았다.

하지만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초가 없기 때문에 대신

오래갈 자반 고등어를 제사의 신불에게 올리는 관습이 있대요.

이건 이 지방의 독특한 것이라라는 것.

또한 양반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제사 때가 아니지만

일부러 헛제사밥을 짓고 먹어 기쁨을 나누었다 라고.



< 혼잣말 > 6 월 10 일

오늘은 지금부터 한글 교실에 나간다.

그렇다고 해도 MERS 는 수습되지 못 하네요.

우리의 여행이 만약에 1 주일 늦었으면 취소되어 있었을 거예요.

운이 좋았다.

(귀국전에 서울에서 MERS 가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귀국 후 10 일이 지나도 발병하지 않으니까요.)



< 혼잣말 > 6 월 11 일

어느 날 미니 불고기 싹밥정식이 라는 식사가 나왔는데,

싸는 잎으로 생 배추하고 진겐사이 이며, 거꾸로 양배추는 데쳐서 있었다.

우리는 다 같이 말했다. 일본은 거꾸로다 라고.



< 혼잣말 > 6 월 12 일

사진은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고식 풍부한 일행의 이벤트이다.

우리 투어에 사흘동안 동행해 주었던 현지 가이드의 이야기인데,

요즘 한일 관계의 악화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이

꽤 줄어 있어서 일본 사람을 위한 현지 중소 관광여행업자가

지난해 6 여행사 정도 폐쇄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행히 자기가 일하는 JTB 은 크니까 괜찮지만요」 라고 했었다.

확실히 이번 투어도 정원 20 명까지 였지만 단 4 명으로

거행되었으니까 영향이 있었네요.

최근 MERS 영향으로 중국이나 홍콩에서부터 관광객의 취소가

늘고있는 한국. 경제적인 타격도 크다.